

고흥군, '2025년 고흥군 청년통계' 첫 공표

인구·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청년현황 한눈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이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2025년 고흥군 청년통계'를 지난 29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고흥군 청년통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흥군에 거주하는 18~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가공통계다. 해당 통계는 올해 처음으로 작성·공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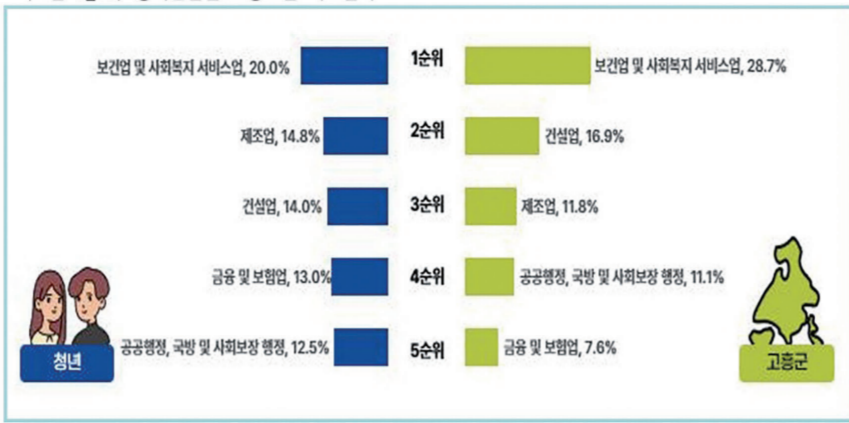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흥군 청

년 인구는 1만 2,196명으로, 고흥군 총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 이동은 총전출 2,607명, 총전입 2,348명으로 순유출 259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32.4%), 가족(23.9%), 주택(21.7%) 순이었다.

일자리 관련 통계 결과를 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청년 고용률은 81%로 나타났으며, 주요 종사산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14.8%), 건설업(14%) 순으로 분석됐다.

군 기획실 관계자는 "앞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결과를 활용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

(그림 3_10) 종사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청년통계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년통계 결과는 고흥군 대

표 누리집(행정정보-통계정보-지역통계)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민 누구나 열람과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쌀은 영암기업이 먼저 소비한다

대불산단 기업 올해 249톤 소비... 상생협력 노력 빛발해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HD현대사회의 올해 1년 영암쌀 소비량이 249톤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 영암기업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사회적 공헌 활동이 맞물리며 영암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영암군은 2023년 12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지난해 5월 HD현대사회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고, 영암 농특산물을 지역기업이 우선 소비하는 '지역-기업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 결실을 맺어 올해 대불산단 입주기업의 영암쌀 소비량이 20kg들이 1만2,450포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가량 된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누적 소비량도 1만7,100포에 달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불산단 기업들은 올해 12월 현재까지 영암사랑상품권 2억 7,000만원, 고흥사랑기부금 9,900만원, 천사펀드 5,100만원을 기부하며 사회적 공헌에 앞장섰다.

특히, HD현대사회 협력사 복지기금 연계한 상생협력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총 11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5월 가정의달에 4억 7,000만원, 흑서기 수박·멜론에 1억 2,800만원, 추석 명절에 5억5,000만원의 농특산물을 구입해 9,000여 직원들에게 나눴다.

한재진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기업 애로사항 청취, 생활 민원 해결 등 지역기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암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과 소비,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 경제 생태계를 정착해 내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강진군이 오는 2026년 적도마의 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 운영한다.

이번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강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 국비 7%, 도비 2%의 지원을 받게 되 여기에 군비 부담률 3%로 총 12% 할인율로 운영된다.

2026년 1월부터 할인율 12%가 적용되며, 선할인 10%에 후캐시백 2%로 운영된다. 후캐시백 2%는 도비로 지원되며, 지원되는 도비는 총 2억 4천 8백만 원으로 예

강진사랑상품권, 1월부터 최대 12% 할인혜택

기존 10% 선할인에 모바일(착) 이용 시 캐시백 2% 더 적립

산 소진 시 종료된다.

다만, 군은 지류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지원은 모바일(착) 상품권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류(종이)형 상품권보다 모바일(착) 상품권을 선호하는 군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체

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7년 연속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연중 10%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상품권 발행과 할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차량 확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배분사업 선정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손은아)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차량 배분 사업에 최종 선정돼 공무용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지원은 관할 구역의 광범위하고 이동 여건이 제한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장 대응 중심의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에 지원받은 공무용 차량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방문 상담, ▲긴급 보호 및 연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은아 센터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이동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지원, 부모교육, 학교밖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함평군,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전남 함평군이 2026년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농산물 생산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경영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량 1만 3천 톤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가운데 보전금 5억 8,311만 원과 군비 5억 6,689만 원이 반영됐다.

보전금은 지방이양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확정된 재원으로, 2027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농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

축분퇴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비료 종류와 등급, 관내·관의 제품 여부에 따라 포당 1,300원에서 최대 1,9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함평군은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사업 지원을 접수했으며, 총 2,233농가가 72만3,72포, 약 1만4,407톤을 신청했다.

군은 2025년 12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와 지원 물량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초 농협과 공급업체에 이를 통보한 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 보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안군, 2025년 노인등록통계 결과 공표

노인 인구 1만 8,398명... 전체의 19.8%로 고령사회 확인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노인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무안군 노인등록통계'를 신규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복지 ▲건강 등 5대 분야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무안군 각 실과, 국가데이터처,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여 개발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공표 결과, 2024년 말 기준 무안군 노인 인구는 18,398명으로 전체 인구 92,913명 가운데 19.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20%)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안군이 고령사회 지역임을 나타내며, 노인 관련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공표된 무안군 노인등록통계는 무안군 홈페이지 '행정공개 → 군정자료 → 노인등록통계'에서 군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광진 기획실장은 "노인등록통계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라며,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무안군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일자리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정책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